

일본 [Japan]

● 오카야마현 양계장에서 뉴캣슬병 발생

지난 9월 7일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조류의 가축법정전염병인 뉴캣슬병이 오카야마현 이하라시(井原市) 양계농가 1호에서 발생되어 약 600수가 폐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농가가 사육한 약 12,000수 중 같은 닭장에서 사육된 약 4,000수를 도살처분하기로 했다.

오카야마현 축산과에 따르면 9월 3일 이카사(井笠)가축보건위생소가 정기 현장검사 중 호흡에 이상이 있는 닭을 발견하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뉴캣슬병으로 판명되었다.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오사카농업무역관

● 영계 닭고기 표시 「無薬飼鶏」를 「特別飼育鶏」으로 변경

지난 9월 4일 일본식조협회에서는 브로일러(영계 닭고기)의 표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무약 사료사육계(無薬飼料飼育鶏)」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특별사육계(特別飼育鶏)」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항생물질과 항균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병 예방에 백신주사만을 사용한 닭에 이 명칭을 사용하며, 일반 브로일러와 구별할 방침이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문서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10월과 11월에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동 협회는 금년 3월에 발생한 계육의 위장사건으로 항생물질을 사용한 닭을 「無薬飼料飼育鶏」으로 표시한 예를 들고 있다.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점 등 회원들과 대응협의를 반복해 왔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중요시하여 표시를 재조정하고 용어사용의 가이드라인 작성에 착수했다. ~~현재~~의 「無薬飼料飼育鶏」는 부화해서 출하까지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기르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서 일반 브로일러보다 약간 높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전염병인 뉴캣슬병 예방백신 등을 접종하는 예도 많고, 「無薬」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는 점이 나오고 있다.

동 협회에서는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표시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가이드라인을 핸드북화하여 주간지인 「카고시마 미야자키 이와테」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오사카농업무역관

● 후생노동성, 중국산 계육 검사원화

지난 9월 4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중국산 계육에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항균제의 검출이 감소되고 있는 점을 들어 수입 시 검사를 원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항균제는 「Clopidol」과 「Sulfaquinoxaline」으로 작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의 수입검

사에서 38건이 검출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사료 등에 혼입된 항균제가 계육에 잔류되었다고 보고 대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했었다.

중국측에서는 계육의 먹이와 닭의 관리를 재조정하여 금년 3월부터는 위반이 3건으로 줄었다.

중국산 계육은 현재 업자가 수입시에 검사를 추진하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장에 유통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검사완화에는 이 조치를 제외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오사카농업무역관

●농림수산성, 소·돼지·닭의 배합사료 제조공정 분리 의무화

일본 농수성은 광우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공장에 대하여 소의 배합사료 제조공정을 다른 가축용과 분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배합사료의 제조시 돼지와 닭용 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의 육골분이 소 사료에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사료안전법에 의거 법령을 내년 4월에 개정하고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행할 예정이다.

혼입방지를 위해 농수성은 2001년 6월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돼지와 닭용 사료를 제조한 후에는 기계 및 설비를 대두가루 등으로 세척한 후에 소용 배합사료를 제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내년 4월 법령개정에서는 기계와 설비를 나누는 등 제조공정 자체를 분리하고 혼입방지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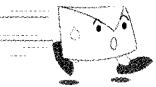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오사카농업무역관

●미국으로부터 가금육 등의 수입 일시 정지 조치 일부 해제

일본 농수성은 지난 9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칠면조 농장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의한 수입 일시정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수성은 미국 가축위생당국으로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의 원인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전염성이 낮고 적절한 방역조치가 취해진 점 등을 보고받아 25일부로 ①같은 종의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버지니아주와 뉴욕주를 포함한 3개주 이외의 미국산 가금류의 수입 일시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 ②캘리포니아주산 가금육 중 도계일자가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추정 침입일 이전인 8월 9일 이전의 것이고 발생주를 경유하지 않고 수출된 것이 미정부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 ③한 캘리포니아주에 관해서는 금후 새로운 발생이 없다면 최종 발생일로부터 90일 후에 일시수입 정지를 해제한다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EU [Europe]

● 미국산 수입계란이 EU산 보다 값싸

EU지역의 철저한 동물 위생보건제도로 인해 2011년도까지 암탉 마리당 양계면적은 점차적으로 최소 750cm²를 확보해야 하는 반면 동물보건 규정이 엄격하지 않은 미국은 350cm²로, EU가 미국보다 생산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된다. 시설비 상승으로 EU의 계란 생산원가는 향후 몇 년간 급상승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화란은 kg당 80센트를 넘어서 미국 생산원가보다 21센트가 비싸다.

현재도 미국산 계란이 값싼 사료로 인해 화란산보다 훨씬 저렴하여 물류비를 감안해도 미국산의 가격이 저렴하다. 현재 유럽에서도 생산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는 화란이며, 향후 생산비용 상승 원인의 80%가 동물보건투자증가인 것으로 보아 프랑스 및 스페인 보다 EU규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킬 화란과 독일의 가격상승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란은 양계장분출가스제한 규정과 살모넬라-free규정 등으로 독일보다도 높은 비용이 예상된다.

- 자료 : 농수산무역정보 화란농업무역관

그리스 [Greece]

● 허브사료로 맛있는 닭고기 생산

그리스의 테살로니키의 아리스토텔레스대학의 연구팀은 기존 닭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는 닭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닭은 아마씨(linseed), 백리향(thyme) 등 허브사료로 사육했는데 허브 linseed는 건강에 좋은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해서 이들 닭의 계란은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콜레스테롤(일반닭갈 220mg에 대비 180mg) 함유량도 적다.

또한 허브가 고기 맛을 높여 설문조사 결과 고기 맛이 60~80% 이상 좋아졌다는 반응이다.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화란농업무역관

태국 [Thailand]

● 일부 새우, 닭고기에 유해 화학물질 함유

태국의 대 유럽 새우, 닭고기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국가들로부터 잇달아 새우, 닭고기의 잔류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국가로부터 수입 오더가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정부는 EU기준에 부합되는 정밀검사기계를 도입하여 유럽으로 수출되는 모든 새우, 닭고기 제품의 품질을 선적 전에 재검사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면허를 취소시키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싱가풀농업무역관

홍콩 [Hong Kong]

● 중국산 신선 냉동계육 수입 협의

홍콩과 중국이 최근 중국산 신선 냉동계육 수입에 대한 협의를 체결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중국산 계육이 홍콩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이번 협의에서 홍콩은 수입되는 중국산 신선계육이 중국국가품질검역총국 또는 출입경검험검역국에 등록된 양계장의 닭으로 국가인증감독관리국에 등록된 가공공장에서 가공할 것을 중국측에 요구했다.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북경농업무역관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2003년 육계 수출액 170억 달러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2~2003년도 미국 농산물 무역전망에 따르면 2003년도 축산물, 가금류, 유제품 수출액은 개정된 2002년도 전망치 보다 5억 달러 상승한 1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주로 육계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육계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의검역 증명서에 대한 국제 협상에 따라 러시아와의 무역이 재개될지라도 수출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시아와 북미 지역의 전통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에 힘입어 쇠고기에 대한 수출액과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도 가축과 모피의 수출액은 개정된 2002년도 전망치와 유사한 18억 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미국산 소가죽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수준으로 인해서 중국과 한국으로의 수출증대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2002년도 육계 수출량은 주로 러시아로의 판매 감소로 인해서 20만톤 감소하였다.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